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訪美) 성과와 시사점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044-414-1093)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차 례

1. 모디 총리 방미(訪美)의 의의
2. 미국-인도의 경제협력 합의 내용
3.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4년 총선을 앞둔 인도 모디 총리는 방미(訪美)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 △전략산업기술 확보 △안보 확충 △국제적 지위 강화의 목표를 달성함.
 - 4박 5일 일정 동안 모디 총리는 미국정부의 환대 속에 정계, 산업계, 학계의 주요 인물과 ‘텔레비 면담’을 진행함.
 - 미국은 모디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해 아시아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고화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인도인의 지지를 끌어냄.
- ▶ 이번 모디 총리의 방미를 통해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인도가 협의 중인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계획이 다수 발표됨.
 - [방산] 인도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해 무기체계를 다변화하고 방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확보함.
 - [첨단기술·공급망] 미국과 인도는 ‘전략산업’으로 불리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함.
 - [에너지·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투자, 원조, 기술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과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력·보건] 인구 대국인 인도가 직면한 인력 개발, 보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은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인도의 유사입장국 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한국정부도 대인도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인도의 전략산업과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규모가 큰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로써 인도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국가임이 확인됨.
 - 인도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평화 유지와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대인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1. 모디 총리 방미(訪美)의 의의

■ 지난 20여 년간 인도와 미국은 지정학적 이해 등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전략적 관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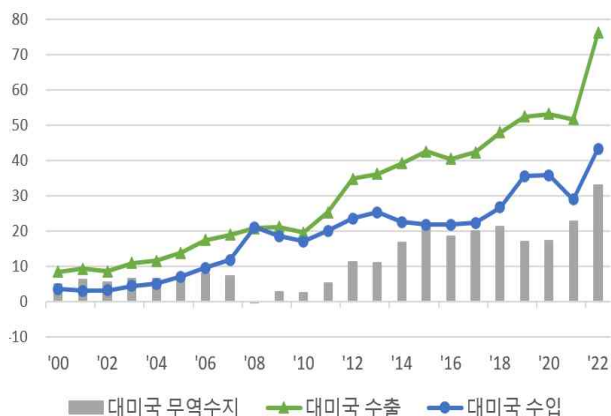
- 20세기 중후반 미국-파키스탄 대 인도-소련(러시아) 군사협력 구도와, 1998년 인도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인도 경제제재로 인해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냉각됨.
-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남아시아 전략상 지원 세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회복을 위해 경제제재를 완화했고, 특히 2008년 미국-인도 민간 핵협정(Civil Nuclear Agreement) 체결을 계기로 양자간 관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함.
- 최근 미국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과 함께 2020년 카슈미르 라다크에서 발생한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사건은 인도와 미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킴.

■ 2022년 기준 미국은 GDP 25조 4,600억 달러로 전 세계 1위, 인도는 GDP 3조 3,900억 달러로 5위의 경제대국으로, 양국의 투자와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음.¹⁾

- [교역] 인도-미국 간 교역규모는 최근 20여 년간 10배가량 성장하며 1,200억 달러(2022년)에 이르렀으며, 인도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확대되고 있음(그림 1 참고).²⁾
- [투자] 최근 ICT·인프라와 운송·유통 분야에서 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러시가 진행되고 있음.
 - 2010~22년 미국의 대인도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FDI)는 1,300억 달러(3,000여 건), 인도의 대미국 그린필드 FDI는 190억 달러(650여 건)를 기록함(그림 2 참고).³⁾

그림 1. 인도의 대미국 상품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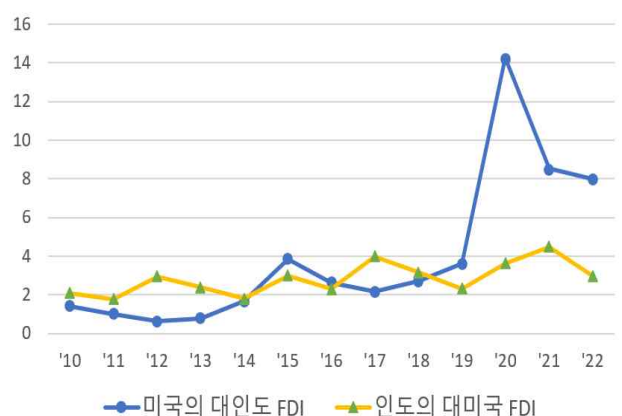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자료: 인도 상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인도-미국 양자간 그린필드 FDI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Di Market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2) 인도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의약품, 기계류, 광물성 연료, 유기 화학품 등이며, 대미국 주요 수입품으로는 광물 연료, 귀금속 및 석재, 항공기, 기계류가 있음.

3) fDi Markets. fDi Markets data base. 미국의 대인도 주요 FDI 사례로는 재생에너지 기업 선 에디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2015년),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2022년) 등이 있음.

■ 20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는 △기업 투자 유치 △전략산업기술 확보 △안보 확충 △국제적 지위 강화 등이 방미의 주요 과제였던 것으로 관측됨.

- 인도는 미국정부로부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대상 국가라는 위상 확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다변화를 모색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함.
 - 인도는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내 생산기지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도 관계 강화는 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방산 및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내수를 자국에서 일정 부분 공급하기 위해 전략산업 분야 미국기업들의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함.
 -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에서는 미국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미국기업들이 인도기업 및 연구기관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음.
- 인도가 남아시아의 맹주 지위를 넘어 글로벌 개발도상국(Global South)의 선두 국가, 남·북, 동·서의 가교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필요함.
 - G20 의장국으로서 인도가 추진하려는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녹색금융 및 기술지원 확대 △저개발국 채무위기 해결방안 마련 △인도의 공공 디지털플랫폼 홍보 및 개도국 수출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참과 지원이 필수적임.

■ 미국정부는 모디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해 아시아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대선에 대비하여 미국 내 인도인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함.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협력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인도의 참여가 필요함.
 - 인도는 2022년 5월 출범한 IPEF에 가입했으나, 2022년 9월 4대 의제 중 무역부문에 대한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안전별로 자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과거부터 무기 수입에 있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의 방산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인도가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됨.
 -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국과의 국경 마찰로 인해 국방예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려고 함.
-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완료된 상황에서 남아시아의 안보 안정화를 위해 미국은 지역 중추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인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음.
 - 미국 내 인도인 다수는 모국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을 지지함.⁴⁾
 - 미국 내 인도인 수는 2000년 190만 명에서 2019년 46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⁵⁾ 과거 모디 총리 방미

4) Badrinathan, Sumitra *et al.*(2021), How do Indian Americans view India? Results from the 2020 Indian American Attitudes Surve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5) "Indians in the U.S. fact sheet"(2021. 4. 29), Pew Research Center.

- 시 2014년 뉴욕(19,000명), 2015년 산호세(18,500명), 2019년 휴스턴(50,000명)에 대규모 인파가 결집함.⁶⁾
- 2008년 당시 상원의원으로서 미국-인도 민간 핵협정 타결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모친이 인도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은 친인도 성향으로 분류됨(글상자 1 참고).⁷⁾

글상자 1. 인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주요 발언

- [2001년]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는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인도에 낙인을 찍는 역할을 한다. 미국이 제재를 중단할 경우 인도는 핵비확산 및 여타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호의를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도입한 제재를 미국정부가 중단할 것을 촉구함.
- [2006년] “개인적으로 미국과 인도가 202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세계는 더욱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인도의 민간 핵협정의 완료를 촉구함.
- [2013년]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다음 세기를 위한 ‘결정적인 관계’다, “우리(미국)는 인도의 모험(경제성장 과정) 그리고 인도가 인류를 향상시키는 과정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발언함.
- [2020년]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인도는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에 함께 대응하고, 중국 등 어떠한 국가도 이웃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 “Biden pushes end to India sanctions”(2021. 8. 28), Associate Press; “Joe Biden believes India-US partnership is defining relations of 21st Century”(2020. 11. 8), mint; “My dream is that the two closest nations in the world will be India and the United States”(2021. 12. 5), rediff.com; “Remarks by Vice President Joe Biden on the U.S.-India Partnership at the Bombay Stock Exchange”(2013. 7. 24), The White House: Speeches & Remarks.

■ 모디 총리는 4박 5일 동안 양국의 산업 및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함(표 1 참고).

- 모디 총리는 인도 정상으로서는 세 번째로 미국 국민 방문 초청을 받았으며, 또한 인도 정상 가운데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두 차례 연설하였음.
- 이번 방미 기간에 모디 총리는 구글, 테슬라, 아마존, 보잉, 제너럴 일렉트릭 등 글로벌 기업의 대표와 과학 기술 및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 모디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유력 정치인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이번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 미국과 인도의 다자간, 양자간 협력체 내에서 협의 중인 사안의 구체적인 사업 및 계획이 발표됨.

- 인도와 미국은 핵심 첨단기술 구상(iCET: Initiative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전략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SCEP: Strategic Clean Energy Partnership) 등 양자간 협력체와 4자간 안보대화(QS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쿼드), I2U2(India, Israel,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United States) 그룹 등 소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해옴.
- 본고에서는 2023년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 주목을 받은 △방산 △첨단기술·공급망 △에너지·기후변화 △인력·보건에 대한 협력 분야를 분석하고자 함.

6) Singh, Arun(2023. 6. 16), “The Modi-Biden dynamics for next steps in India-U.S. relations,” Carnegie India.

7) Badrinathan, Sumitra *et al.*(2021), How will Indian Americans vote? Results from the 2020 Indian American Attitudes Surve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표 1. 인도 모디 총리의 2023년 방미 시 주요 면담 및 행사

날짜	면담자 및 참여 행사	논의 내용
6/21 (수)	Elon Musk (테슬라 & 스페이스X CEO)	전기차에 대한 투자 및 상업우주 부문의 급속한 확장과 관련해 인도에서의 기회 모색
	Nicholas Taleb (뉴욕대학교 교수/수학, 통계학자)	젊은 인도 기업가들의 모험정신과 성장하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강조
	Robert Thurman (불교학자/Padma Shri상 수상자/ Tibet House 공동창립자 및 대표)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서 불교적 가치의 중요성/인도의 불교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Ray Dalio (브리지워터(헤지펀드) 공동 설립자/투자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개혁/인도에 대한 추가 투자 논의
	Neil de Grasse Tyson (물리학자, 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도의 우주기술 발전 및 국가 우주정책의 민간부문과 학술협력 기회 논의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와의 만남	정책 결정의 다양한 관점과 글로벌 트렌드 및 인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청년세대에 의해 어떻게 강화될지를 강조
	미국 학자들과의 만남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인도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강화 가능성 논의
	Paul Romer 뉴욕대학교 교수 (노벨상 수상자/경제학자/정책 기업가)	아드하르(Aadhaar) 및 디지록(Digilocker)와 같은 디지털화 서비스 등을 사용한 인도의 디지털 전환 및 인도 도시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
	보건 전문가들과의 만남	최신 의료 기술 사용 및 결핵 퇴치방안을 포함한 인도의 의료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
	Falguni Shah (인도계 미국인 가수/그래미상 수상자)	환경친화적이며, 인도정부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곡물 '조(millet)'에 대한 인식을 높인 노래 'Abundance in Millets'를 부른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
	G20 관광장관회의 연설	고아에서 열린 G20 관광장관회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설
6/22 (목)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세계 요가의 날 9주년을 맞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조화와 평화의 원천이 되는 요가의 중요성 강조
	Erick Adams (뉴욕시장)	
	Gary E. Dickerson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CEO)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인도의 공정기술 및 고급 패키징 기능 개발, 숙련된 노동력 창출을 위한 인도 학술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논의
	H. Lawrence Culp, Jr. (제네럴 일렉트릭 CEO)	인도 내 제조 촉진을 위한 GE와의 기술협력 강화 및 항공·재생에너지 부문에서 GE의 인도에 대한 기여방안 논의
	Sanjay Mehrotra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	인도의 반도체 제조 촉진 논의
	G20 교육장관회의 연설	더 나은 거버넌스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e-러닝 활용 관련 비디오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질 바이든 박사/ 직계 가족 행사	비공개 회담/환대
	India and USA: Skilling for Future 행사	과학 및 기술협력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백악관 환영식	-

날짜	면담자 및 참여 행사	논의 내용
6/23 (금)	미국 합동 의회 연설	민주주의적 가치의 중요성과 인도와 미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조 바이든 대통령	무역 및 투자, 국방 및 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인적 유대와 같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증대 강조
	Kevin McCarthy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자	인도-미국 양자 관계의 급속한 발전 및 인도가 이룩한 엄청난 발전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강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선언문 발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양국의 공동 우선순위를 강조
6/24 (토)	David L. Calhoun (보잉 CEO)	항공기의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 영역을 포함해 인도의 항공부문에서 보잉의 중요성 강조 및 인도의 우주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 독려
	Andrew R. Jassy (아마존 CEO)	인도의 물류부문에서 아마존과 추가 협력 가능성 논의/아마존이 인도의 MSME 부문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강조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토론
	인도-미국 '하이테크 악수' 행사	기술 및 혁신과 관련된 양국 대표 기업들의 CEO를 만나 기술이 인도-미국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 논의
	Sundar Pichai (알파벳/구글 CEO)	인공지능,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모색 및 R&D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글과 인도 학술기관 간 협력 논의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USISPF)이 주관한 미국 전문가 모임에서 연설 (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참석)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인도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자료: PMINDIA 및 Narendra Modi·PMO India 트위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2. 미국-인도의 경제협력 합의 내용

가. 방산

■ [배경]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202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인도가 방산부문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함.

-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방산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와의 방산협력 의지를 표명함.
 - 2018~22년 기준 인도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1%를 차지하는 최대 무기 수입국이며, 인도의 최대 무기 수입대상국은 러시아(점유율: 45%), 프랑스(29%), 미국(11%)임.⁸⁾
- 인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대두되자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본격화함.⁹⁾

8) Wezeman, Pieter *et al.*(202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 2022," SIPRI Fact Sheet.

- 인도군 장갑차의 90%, 전투기의 69%, 잠수함과 군함의 44%가 러시아제임.¹⁰⁾
 - 2023년에 양국이 발표한 핵심 첨단기술 구상(iCET) 추진계획에는 ‘방산협력 로드맵’을 마련해 제트 엔진, 화공품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언급됨.¹¹⁾
- [방미 성과] 미국은 인도 방산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고, 인도는 생산 및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 육성에 기여하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확보함.
- 미국 방산기업 제너럴 일렉트릭과 인도 국유 방산업체인 힌두스탄 에어로네틱스(Hindustan Aeronautics)는 GE의 F-424 제트 엔진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해당 제품은 힌두스탄 에어로네틱스의 경전투기인 Mk2에 탑재될 계획임.
 - 인도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의 MQ-9B 고고도 장거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제너럴 아토믹스는 인도에서 무인항공기를 조립하고 MRO 기지를 설립할 계획임.
 - 양국은 미국의 해군 자산을 인도 조선소에서 유지·보수하는 전략에 합의함.
 - 양국의 학계, 산업계, 연구소, 스타트업은 미국-인도 방산가속화생태계(INDUS-X)를 설립해 공동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전망] 인도가 국방 강화와 무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와 자국 제조업체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모디 정부는 방산에서 자동승인 제도하 외자기업의 지분 소유 허용 비율을 49%에서 74%로 높였고, 2016년 이후 정부 승인이 있을 경우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함.

나. 첨단기술·공급망

- [배경] 대중국 견제구도하에서 미국과 인도는 첨단기술·공급망을 중요한 협력 의제로 설정함.
-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핵심 요소인 첨단기술·공급망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중시하며, 인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육성 의지가 높아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함.
 - 2021년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의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핵심 첨단기술 구상(iCET)하 해당 산업에서의 협력방안을 기획함.
- [방미 성과] 미국은 우주, 반도체, 차세대 통신,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도를 끌어들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고, 인도는 첨단기술 육성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획득함.

9) Barrie, Douglas and Viraj Solanki(2022), "Purchasing from a pariah: India's arms acquisition dilemma," IISS online analysis.

10) Waldwyn, Tom and Viraj Solanki(2023), "India's defence plans fall victim to Putin's war," IISS online analysis.

11) The White House(2023), "United States and India elevat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iCET)."

- [우주] 인도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¹²⁾에 서명하고, 미국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2024년 국제우주정거장에 인도인 우주비행사를 보낸다는 목표하에, 미국은 인도 우주비행사를 훈련시킬 계획임.
 -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공동 개발한 재난, 기후변화 영향 추적 위성인 NISAR (NASA-ISRO Synthetic Aperture Radar)를 ISRO에 전달함.
 - [반도체] 미국기업들이 대인도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양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 파트너십(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Innovation Partnership)에 대한 MoU를 체결함.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는 8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구자라트에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고,¹³⁾ 램 리서치(Ram Research)는 인도 반도체 엔지니어 6만 명에 대한 훈련계획을 제안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는 인도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 [차세대 통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및 글로벌 디지털 포용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
 - 오픈 랜(Open RAN) 및 5G/6G 기술에 대한 공동 태스크포스와 양국 기업간 시범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함.
 - [양자기술] 인도-미국 양자기술 합동 메커니즘(Indo-U.S. Quantum Coordination Mechanism)을 설립해 향후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인공지능] 국제 논의, 교육 및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 추진, 상업적 기회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구글은 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디지털화 펀드(India Digitization Fund)를 통해 인도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지속, 특히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통해 100여 개의 인도 언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함.
- [전망] 우주, 반도체, 쿼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공급망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본격화됨으로써 미-중 갈등하에서 인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기술·공급망 분야에서 인도의 위상이 분명해졌으며,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의 디리스크(de-risking) 측면에서 인도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평가됨.

다. 에너지·기후변화

■ [배경] 인도와 미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협력을 강조해옴.

- 미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며, 인도는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고려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¹⁴⁾
- 2021년부터 양국은 기후 및 청정에너지 여젠다 2030 파트너십하에서 전략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SCEP)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저탄소화 관련 기술혁신을 목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12) NASA는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참여국들은 우주개발의 원칙을 제시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함.

13) 인도 연방정부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50%, 그리고 구자라트 주정부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14) US Embassy and Consulates in India, Joint Statement: U.S. and Indian Ministers Revitalize the Strategic Clean Energy Partnership.

- 양국은 SCEP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성장 △전력 및 에너지 효율성 △책임 있는 석유 및 가스 △신형 연료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방미 성과] 양국은 청정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탈탄소화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함.

- [기후변화·청정에너지] 양국은 수소에너지 비용 감축, 신재생에너지 협력,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탄소포집 활용 등을 위해 SCEP하에 구체적인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로 함.
 - 청정·수소 에너지 비용 감축을 위해 미국의 수소에너지 어스샷(Hydrogen Energy Earthshot)과 인도의 국가 녹색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 전략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친환경 운송수단] 양국은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무공해 차량 및 전기차 상용화, 바이오 연료 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
 - 인도 철도청과 미국 국제개발처는 2030년 인도 철도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발표함.¹⁵⁾
- [원자력] 양국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형 모듈식 원자로기술 개발 및 인도의 원자력 공급자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가입에 대해 논의함.
 - 인도 원자력공사(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Westinghouse Electric Company)는 인도에 여섯 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임.
- [핵심 광물] 인도는 미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에 가입하기로 했으며,¹⁶⁾ 이는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양국의 협력 강화는 △국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저탄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국제개발기관과 기업들의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인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라. 인력·보건

■ [배경] 미국과 인도 간 인적교류 및 의료·보건 관련 협력 확대의 필요성과 잠재력이 큼.

- 양국의 인적교류 증가와 미국 내 인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¹⁷⁾
 -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인도 유학생 수가 2011/12년 10만 270명에서 2021/22년 19만 9,182명으로

15) US Embassy & Consulates in India. U.S. and India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Strengthen Climat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

16)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EU, 호주, 일본, 한국 등 15개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 측에 참여 의지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짐.

17)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 이민인구는 단순히 인적교류를 넘어 인도-미국 간 기술·산업 협력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중국 유학생 수(29만 86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함.¹⁸⁾

- 인도 출신 경영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IBM 등 미국의 주요 전자 및 테크기업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음.¹⁹⁾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공동 대응 및 제약 공급망 관련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됨.

■ [방미 성과] 양국은 △교육·연구 △비자 및 인적교류 △의료 및 제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

- [교육·연구] 미국과 인도는 양국간 교육 및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와 인도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등 인도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함.
 - 또한 인도-미국 글로벌 챌린지 연구소(Indo-U.S. Global Challenge Institutes)를 설립하고, △반도체 △농업 및 식량안보 △에너지 및 환경 △의료 및 감염병 대응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함.²⁰⁾
- [비자·인적교류] 양국은 비자 발급제도 개선, 영사관 신설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환경 증진에 합의함.
 - 양국은 상호간 비자 심사 및 발급을 신속화하기로 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인도인을 대상으로 임시취업 비자의 갱신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 미국정부는 벵갈루루와 아메다바드에 새로운 영사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도는 2023년 말 시애틀 영사관을, 그리고 2024년에는 2개의 영사관을 신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 [보건] 양국은 글로벌 감염병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제약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역학조사, 연구·실험 역량 제고 등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감염병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또한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적용 활성화 등 디지털 보건 플랫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활성물질, 출발물질 등 핵심 제약 분야 협력을 통해 제약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로 함.
 - 미국-인도 악성종양 대화(U.S.-India Cancer Dialogue)를 신설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전망]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적교류, 의료·보건 분야에서 다각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인도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연구·교육 협력 및 비자 발급제도 개선으로 양국간 산업 및 기술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며, 의료·보건 및 제약 관련 협력 확대에 힘입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상호 공조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

18)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All places of origin database.

19) "You are not imagining it. Indian-origin CEOs indeed are everywhere"(2022. 4. 10), *Quartz*.

20) 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2023. 6. 21), "Interim Task Force Report on Expanding U.S.-India Partnerships."

3. 시사점

■ 모디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인도는 미국의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 위상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무역·투자 관계 강화와 더불어 방산, 하이테크, 에너지 등으로 협력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경제·외교·안보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내 전략적 지위 유지와 가치사슬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고 남아시아 내에서 영향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구도를 경제적·안보적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 미국은 인도의 핵심적인 개발목표인 △국방 강화 △제조업 육성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함.
 - 미국과 인도가 발표한 협력사업은 단편적, 선언적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성격이 강하고 구체성이 높음.
- 양국은 향후 협력관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해소하거나 언급하지 않음.
 -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진행 중인 6건의 WTO 분쟁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함.²¹⁾
 -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인도에서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내정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함.

■ 단기적인 ‘신시장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 중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인도 정상회담은 세계가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준 이벤트였으며, 인도가 외교 면에서 자국의 높아진 위상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냄.
- 인도를 한국기업들의 ‘신시장’으로만 보는 관점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되며, 긴 호흡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도와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하에서 대인도 협력 비전을 조속히 수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신남방정책의 협력 비전은 아세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구상된 것이었으며,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이후에도 명확한 대인도 협력 비전이나 과제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아세안의 경우, 신남방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전과 중점 협력과제를 담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이 발표된 바 있음.
- 인도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하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인도 협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추진과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함.
- 과거 중국이나 동남아 진출 경험과는 달리 인도의 경우 한국 민간부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21) USTR(2023. 6. 22), “United States Announces Major Resolution on Key Trade Issues with India.”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함.

■ 한국-인도 협력 확대 및 분야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완화와 산업 자립이 중요한 과제인 인도에게 한국의 중요성은 분명함.
 - 한국은 인도의 산업기반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의지에 가장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 중 하나임.
 -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기간산업은 지금 인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임.
-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도 시장 및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임.
 - 이번 모디 총리의 방미에서 드러났듯이, 미·중 갈등하에서 인도는 공급망 디리스킹(de-risking) 및 신뢰기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 가치가 높음.
 - 인도는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첨단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임.
- 한국은 인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근 미국과 인도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에너지·기후변화, 인력교류 등에 대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는 방산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할 여지가 큼.
 - 최근 인도와 한국 간 안보협력이 급성장하는 추세로, 다젤 잠수함, 탱크, 기동 헬기, 미래형 전투차, 잠수함용 배터리 등의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며, 첨단 해군 조선기술 이전도 검토되고 있음.²²⁾
 - 인도는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Indian Ocean Naval Symposium), 인도양 지역 정보융합센터(IFC-IOR: Information Fusion Center-Indian Ocean Region) 및 상선 정보교환 협정(White Shipping Agreement)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²³⁾ 해양안보 영역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큼.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 분야의 다각화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항공우주, 첨단기술, 반도체, 인프라, 통신, 에너지·기후변화 등 양국의 니즈가 부합하는 분야를 협력 분야로 포함함으로써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 **KIEP**

22) 라흐빈더 싱(2023. 1. 30), 「인도와 한국, 공통의 미래 위협 대비해 방산 협력 강화할 때」, 『조선일보』.

23) 최원기(2023), 「최근 인도의 '전방위 외교'와 대 인도 외교 추진 방향」, IFANS Focus 2023-20, 외교안보연구소.